

## 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## 방카슈어러의 몰락, 유럽 보험시장 재편 촉발

□ 금융위기로 인한 유럽 보험권의 첫번째 퇴출이 보험업과 은행업을 겸업하는 방카슈어러(Bancassurer)로 드러나는 가운데 보험사업에 비교적 치중하였던 보험 그룹들은 방카슈어러의 매각대상 보험자산을 적극 매입할 것으로 알려져 유럽 보험시장의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.

- 유럽의 방카슈어러들은 보험업과 은행업의 겸업을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실시하면서 그간 높은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, 금융위기로 인해 투자손실이 커지면서 지나해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음.
- 최근 대표적인 방카슈어러인 ING와 RBS(Royal Bank of Scotland)는 구제금융에 대한 유로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보유자산을 매각하도록 지시받고 보험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
  - 유로집행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어가는 현재까지 구제금융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로지역내 공정경쟁에 위배된다고 판단
  - ING는 유로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10월 26일 4년 안에 모든 보험사업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
  - 영국 소매은행시장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RBS는 10월 30일 보험사업부문 등을 매각하기로 결정

□ 방카슈어러의 매각대상인 보험부문 인수에는 영국계의 Aviva, 이탈리아의 Generali 등 거대 보험그룹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임.

- Aviva는 현재의 사업부문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ING의 신흥국 해외보험영업과 동유럽 보험사업부문 등 ING의 매각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 의사를 밝힘.
  - 또한 ING의 벨기에 보험사업을 인수하여 네덜란드내 자회사인 Delta Lloyd와 합병함으로써 네덜란드-벨기에 보험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, RBS의 손해보험사업 인수는 시너지 창출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
- Generali 역시 ING의 매각대상 보험사업은 장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적극 인수 의사를 밝혔으며 향후 추가적인 방카슈어러의 보험사업에 대해서도 인수 의사가 있음을 밝힘. (Financial Times 11/5, 11/4, 10/26, Guardian 10/30)